

속인들 [ordinary /secular people] 대상 BE382 Pauline Gospel [#10]

바울의 복음 - 2016년 겨울 Quarter, 총10강

강사/Prof. Jeremy Hong (jesusacademy@gmail.com) 323.788.7025

***I*. 우리는 지금 <비판-정신>(비판적 사고 방식) 연습 중!**

1. 진지하게 상대(대상물) 파악.

저자의 논지를 충실히 파악하는 게 기본.

2. “나의 입장/상황”에서 “질문”을 제기.

논지(들의 - & 주요 개념들의) 선명성,

근거 확고? 지금의 나에게도?

뒤에게 무엇이 좋을까? 나/우리에게 주는 유익은?

물론 늘 “WHY?”를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건, 공부 자세의 대전제!

3. (대립을 넘어) 제3의 지점에 이르러는 “창조적 노력”을 경주!

***II*. 교재(크로산/보그) 8장 읽기**

1.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, 64년,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첫 대형 순교 사건 때, 희생 군중 속에서 함께 죽어갔을 것이다.

2. “후대의, 장엄한 순교”라고 보는 속설은 근거가 희박하다. ...

* (누가복음-) “사도행전”의 결말에 대한 추론 &... 그 문제점

***III*. 크로산/보그의 교재 <<첫번째 바울의 복음>> 되돌아보기**

1. 강점

1) 바울의 큰 그림 주목/ 우주의 평화! 유대인과 이방인의 “그리스도 안에서” 통일/평화

2) 바울이 “예수를 주님”으로 고백하는 현상에 대한 로마 문명이 유적들의 고고학적 증거 자료 제공

3) 자기의 현장(미국)의 문제(사람을 억압하는 바울)를 주목!

2. 약점

1) “첫번째” 바울과 “후대의” 바울(성경 책들) & 어거스틴의 경우

2) 예수, 바울의 “민족주의,” 전혀 무의식!

3) 바울의 “복음”을 “제국주의”라는 하나의 틀에 못박았다.

즉 유대교와의 갈등, 차별성에 대하여는, 최대한, 비하-극소화!

4) 성서학자의 한계! -- “추론” & “신 개념”

3. 바울 읽기, 대안

1) “이민자”/“속인”이 읽어도 바울의 예수는 “좋은 소식”이다!

왜?

2) 바울은 예수 안에서/통해서

(1) 자유를 얻었다(율법, 예수의 가르침, 죽음의 세력)

(2) 그 자유는 “나는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제는 죽어도 좋다”는 삶의 경지를 주었다.

(3) 어떤 처지에서든 이 자유는 빼앗기기 않는다.

빈하든 부하든, 편하든 옥살이를 하든!

3) 종교는, 김연아의 경우이든 바울의 경우이든 -- Life Designing Power --

자신의 “삶을 운영해 나가는 힘”을 주는 역할을 한다.

*즉 “신”과의 관계, “새 제국”은 “궁극적 틀”이 못된다!

4) 바울 사상의 핵심은

NOT

(1) 율법의 행위/믿음(의 행위)

(2) 로마 제국/새 제국

(3) 보복적 정의/분배적 정의 -->> “아름다움”의 경지

BUT

(1)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!

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=□문자!

사막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=×정신(영)!

*영은 몸을 다스리는 (생활) 방식의 하나! [다른 하나는 “육”]